

KIA 9회 짜릿한 역전극

서재응·박지훈·최향남 호투... 2-1 넥센 꺾고 5할 승률 지켜



호랑이 군단이 9회 역전극을 펼치며 5할 승률을 지켰다. KIA 타이거즈가 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박지훈의 역전희생타로 2-1의 승리를 거뒀다. 신인왕 후보 KIA 투수 박지훈과 넥센 타자 서건창의 대결에서 승부가 갈렸다. 1-1로 맞선 7회 1사 만루가 승부처가 됐다. 선발 서재응에 이어 5회 마운드를 물려받은 앤서니가 1사에서 유한준의 2루타에 이어 몸에 맞는 볼과 볼넷으로 1사 만루를 허용했다. 역전 위기에서 박지훈이 등판하면서 신인왕 후보 서건창과의 맞대결이 벌어졌다. 단국대를 졸업한 신인 투수 박지훈은 두

독한 배짱으로 KIA의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는 신인왕 후보. 광주일고 출신의 넥센 서건창도 LG에서의 방출의 설움을 딛고 새로운 야구 인생을 펼치고 있는 신인왕 라이벌. 앞선 7일 1·2회 볼넷을 골라내며 2득점을 추가했던 톱타자 서건창은 이날 3번째 타석에서는 3루타를 때려내기도 했다. 8일에도 멀티히트를 만든 서건창은 빠른 발로 도루도 기록했다. 폭넓은 수비로 안타성 타구를 땅볼로 만들어내는 등 신인왕 후보다운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신인왕 후보 맞대결에서는 서건창이 관정패를 당했다. 초구에 서건창의 방망이가 움직였다. 1루수 최희섭이 서건창의 땅볼을 잡아 홈에 송구를 하면서 투 아웃. 박지훈이 장기영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이닝을 종료

시켰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서건창은 9회에는 플라이를 놓치는 실책까지 범했다. KIA는 박지훈의 호투에 힘입어 9회 재역전극을 펼쳤다. 선두타자 안치홍이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이정훈의 폭투로 2회까지 내달렸다. 최희섭의 땅볼에 이어 박지훈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안치홍이 홈에 쇄도해 1-1의 팽팽한 균형을 깨졌다. 마무리 최향남도 거침없는 피칭으로 팀의 5할 승률을 지켜냈다. 1점차 승부에 등판한 최향남은 유한준, 허도환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투 아웃을 만들었다. 김민성에게 좌전안타를 맞았지만 서건창마저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값진 세이브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의 루키 박지훈이 8일 목동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박지훈은 1-1로 맞선 7회 1사 만루의 위기를 막아내면서 2-1 승리의 주역이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박지성 “쉿~! 오늘 모든 것 말할게요” 맨유의 심장 QPR에서 새 도전

‘캡틴’ 박지성(31)이 7시즌 동안 정들었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유니폼을 벗고 새로운 동지인 퀸즈파크레인저스(QPR)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맨유에 입단하면서 ‘한국인 1호 프리미어리거’로 한국 축구사에 이름을 남긴 박지성은 2011-2012시즌까지 7시즌 동안 지치지 않는 체력을 앞세워 205경기에 출전해 27골을 터트렸다. 성실한 플레이와 좌우 측면은 물론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는 박지성의 능력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믿을맨’으로 입지를 굳혔지만 지난 시즌부터 출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결국 ‘이적 카드’를 선택했다.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어린 시절 박지성은 예소한 체구 때문에 축구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세류초등학교 6학년 때 한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주는 ‘차범근 축구상’(5회)을 수상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수원공고를 졸업할 때까지 눈길을 주는 대학팀조차 없었다. 하지만 당시 수원공고를 이끌던 이학중 감독의 추천으로 1999년 명지대에 입학한 뒤 박지성의 축구인생은 180도 변하기 시작했다. 박지성은 대학 1학년 때인 1999년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올림픽대표팀과의 몇 차례 연습경기 나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되는 행운을 누렸다. 이를 발판으로 박지성은 2000년 국내 K리그가 아닌 일본 J리그 교토 퍼플상가로 진출했다. 박지성의 기량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

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다.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트린 박지성은 축구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그해 J2리그(2부)의 교토퍼플상가를 1부리그로 끌어올린 박지성은 거스 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고 2003년 초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에 입단해 박리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2년 6개월 만인 2005년 7월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거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시련도 있었다. 2003년 에인트호번(네덜란드) 시절 오른쪽 무릎의 반월형 연골관 제거 수술을 받았던 박지성은 2007년 4월 오른쪽 무릎 연골 재생 수술을 받고 9개월의 회복을 견뎌내야 했다. 결국 박지성은 소속팀 경기에 더 집중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아시안컵을 끝내고 난 뒤 11년 동안 정들었던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훌거분한 마음으로 맨유 경기에 더욱 집중한 박지성은 지난 2월 6일 맨유 입단 6년 7개월 만에 2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맨유의 전설’ 대열에 끼 수 있었다. 맨유가 1878년 창단한 이후 134년 동안 개인통산 200경기 이상을 뎀 선수는 박지성을 포함해 92명뿐이었다. 200경기 출전에 성공한 박지성은 당당하게 300경기 출전을 기약했지만 QPR 이적이 임박해지면서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박지성이 맨유에서 남긴 기록은 통산 205경기(27골)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QPR은 어떤 팀?

박지성의 프로 통산 네 번째 팀이 될 QPR은 런던을 연고로 1882년 창단된 유서 깊은 구단이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험은 없고, 1992년 프리미어리가 출범하기 앞서 1976-1977시즌 1부 리그에서 준우승을 한 게 최고 성적이다. 프리미어리가 처음 출범한 1992-1993 시즌을 5위로 마감한 QPR은 1995-1996 시즌에 챔피언십(2부리그)으로 강등돼 암흑기를 맞았다. 이후 QPR은 리그 1(3부리그)까지 추락했다가 2003-2004

1882년 창단...감독은 맨유 출신 마크 휴즈

시즌 준우승을 차지해 힘겹게 2부리그로 다시 올라섰다. 2부리그 2010-2011 시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해 1부리그로 복귀한 QPR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위에 그쳐 겨울 강등을 면하고 1부리그에 남게 됐다. 현재 QPR을 이끄는 사령탑은 맨유에서 1980~90년대 화려한 현역 생활을 펼친 공격수 출신의 마크 휴즈(49) 감독이다. 1980년 맨유에서 프로에 데뷔한 휴즈 감독은 1986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가

1988년 맨유에 복귀해 1995년까지 256경기 출전, 82골을 뽑아내며 최고의 전성기를 펼쳤다. 2002년 현역에서 은퇴해 지도자의 길을 걸었고, 2008년 맨체스터 시티의 지휘봉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QPR에는 프랑스 대표팀 출신의 공격수 지브릴 시세(프랑스)와 측면 공격수인 손 라이트 필립스,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미드필더 키에론 다이어를 비롯해 맨유에서 한술밥을 먹은 수비수인 파비우 다 실바 등이 뛰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고교야구 광역리그 전라권 우승

동성고와 함께 청룡기 출전

광주일고가 고교야구 광역리그에서 전라권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일고가 8일 광주 OB 구장에서 열린 북일고와의 최종전에서 7회 0-8 골드패를 당했다. 마지막 경기에서 패를 기록했지만 광주일고는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

회를 겸해 열린 광역리그에서 5승1패의 전적을 거두며 전라권 우승을 차지했다. 동성고도 역시 5승1패를 기록했지만 실점에서 뒤지면서 광주일고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전라권 1·2위를 차지한 광주일고와 동성고는 오는 21일 개막하는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다저스 전 구단주 오말리家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인수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 구단주인 피터 오말리 가문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 폭스스포츠의 칼럼니스트인 켄 로젠설은 샌디에이고 구단 매각 협상과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오말리 가문이 파드리스 구단 인수전에서 승리했다고 8일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인수 대금은 8억 달러(9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오말리는 두 명의 아들, 두 명의 조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특급 스타 필 미켈슨 등과 구단 인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매각 협상이 1~2주 안에 끝나면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은 8월 구단주 모임에서 오말리 가문의 파드리스 인수를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피터 오말리는 올해 초 매물로 나온 다저스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팽팽한 경쟁 그룹에 밀려 인수를 포기했다. 1950년부터 1998년까지 48년간 다저스를 소유했던 오말리 가문은 팀을 서부지역 명문구단으로 이끌었다. /연합뉴스



전국휠체어러كب동호인 최강전

2012 광주전 전국휠체어러كب동호인 최강전이 지난 6일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개막해 8일까지 3일간 열전을 벌였다. 20개 시도 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 개막전에서 광주태극태권도원과 고양시불스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 ▶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 ▶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 세번째 산행 7월 19일(목) / 변산반도-능가산**
-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후원 | 63 광주일보사